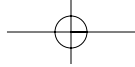




그리스도인과 여행

에디오피아 정교회의 한 수도원은 해마다 두 차례씩 모든 수도사들에게 장기 여행을 떠나도록 한다. 여행 없이 일 년 365일을 작은 울타리 안에서 맴돌고 살았을 때 수도사들은 시시한 일로도 서로 싸우고 쉽게 분을 내었다. 자신들의 주무인 신앙적인 활동들과 노동에서 즐거움을 잃고 위대한 성무에서 아무런 의미도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 여행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관습이다. 동료들과 동행하기도 하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다른 지역의 수도원이나 교회를 여행하기도 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수도사들은 영적 능력뿐만 아니라 유머 감각을 회복하고 넓은 아량과 폭넓은 판단력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제 여행은 수도생활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자체로 삶의 일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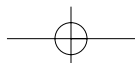
이런 종류의 여행은 1,700년 전 고대 수도사들이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삶의 방식이었다. 수도사들의 아버지인 안토니도 처음 은둔 생활을 시작했을 때 수실에 박혀 있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행을 했다. 열심히 수도하는 사람에 대해 듣게 되면 그곳이 어디라도 지혜로운 별처럼 그를 찾아 나섰다고 한다(아타나시우스, 『성 안토니의 생애』, 3, 4). 각자의 장점이 달랐기에 어떤 이에게서는 오래 참음을, 어떤 이에게서는 온유를, 어떤 이에게서는 금욕적인 삶의 방식을, 어떤 이에게서는 탁월한 학문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돌아올 때는 ‘꽉 채워져서’ 돌아왔고, 그러한 덕이 자신 안에 나타나도록 노력했다. 선배 은둔자들에게 한 수 배우기 위한 구도여행은 사막의 전통이 되었다. 안토니의 후배들인 사막 교부들은 한 주간의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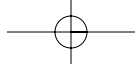


반은 기도와 노동으로 홀로 보내고 절반은 선배들을 찾아 여행을 떠났다. 때로는 나일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여러 날을 보냈고, 때로는 황량한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위험한 여행을 하기도 했다. 모두가 배우기 위한 여행이었다. 인간완성을 향해 올라가는 여행길에서 가이드의 조언 없이는 제대로 갈 수가 없었다.

1. 성경에서의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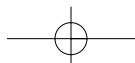
여행의 기원은 하나님에게로 소급된다. 기독교는 여행에서 태어나고 여행으로 성장하고 여행으로 종결되는 종교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행 이야기로 가득하다. 에덴에 거주한 인류의 조상은 ‘먹지 말라’는 금식 명령을 어긴 후 낙원에서 추방당하면서 여행은 시작되었다.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조상은 떠난 거리만큼 다시 여행을 해야 했을 것이다. 타락 이후부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여행으로 전개되고 여행으로 발전했다. 노아는 배를 타고 비바람 치는 바다를 헤매며 긴 선상 여행을 해야 했고, 바벨탑을 지은 그의 후손들은 그 벌로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여행길을 떠나야만 했다.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나라는 여행을 명령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생을 출발을 한다. 야곱은 가족을 속인 거짓 말이 탄로나서 집을 떠나야 했고 돌아오는 여행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형들의 미움을 받던 요셉은 비즈니스맨들의 무역 여행길을 따라 애굽으로 팔려갔다. 그의 가족들은 애굽에 정착하기 위해 가나안을 떠났고, 수백 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와 약속된 땅으로 다시 귀환하는 긴 여행을 한다. 그들이 가나안 땅





에 정착하고도 여행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한 해에 세 번이나 모든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며 자신을 만나도록 여행을 명령하신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된 후 칠일 간에 걸쳐 진행되는 삼대 절기들, 유월절(무교절), 칠칠절(오순절), 초막절(장막절)에는 언제나 순례 여행객들로 도시가 붐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20편에서 134편 사이의 열다섯 편의 노래, 일명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여행을 했다. 그 기간들은 기쁨의 축제였고 성소는 파티장이었다. 땅을 파고 양을 치다가 이때만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 세월이 흘러 알맹이 없는 종교 놀이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여행을 예약하셨다. 이스라엘은 70년 후 눈물로 떠나온 길을 다시 돌아가는 긴 여행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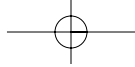
신약에 와서도 여행 이야기는 여전히 맹위를 떨친다. 우리 주님은 여행 중에 태어나서, 여행을 업으로 삼아 일하시다가, 여행 중에 생을 마감하신 분이셨다. 그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한 동방박사들처럼, 그의 부모들도 로마 정부에 의해 내려진 호적령으로 인해 여행을 떠나야 했고 목적지인 베들레헴이 당도했을 때에 주님을 출산했다. 주님은 메시아로서 공적 임무를 시작하신 후 한 곳에 정착하여 일하지 않으셨다. 온 갈릴리와 유대 땅을 이 마을 저 마을로 순회 여행하면서 전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셨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여행 이야기들로 충만하다. 주님은 절기가 되면 어김없이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렸다. 십자가 처형으로 끝나는 그의 인생의 종말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중에 벌어진 일이다. 부활하신 후에는 그분이 원래 거주하신 곳으로 다시 귀향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길을 다시 올라가셨다.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가야만하는 선교 여행을 명령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열 두 사도들 중 어느 한 사람도 고향 땅에서 정착하여 일하다가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여행지에서 인생을 끝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능력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중에 체험한 성령의 능력이었다. 스테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들을 제거하려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여행 중에 주님을 만났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아 이제 바울이 된 그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평생토록 세상 끝까지 여행했다. 그가 일곱 교회들에 보낸 서신들은 로마교회를 제외하고 모두 그의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들이다. 로마서도 방문 여행을 앞두고 바울이 보낸 편지이며, 그 내용에서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의 여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천상의 도시로 신비로운 여행을 체험한 사도 요한의 기행문이다. 이 천국 방문기는 모든 독자에게 인생이 가야 할 마지막 여행지가 어디인가를 보여주고 그 여행을 준비케 하면서 끝이 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야 할 마지막 여행은 아직 남아 있다. 그 여행이 이루어지는 날 인류의 모든 여행도 끝이 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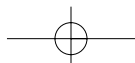
위에서 보듯이 여행은 기독교의 나이만큼이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성경에서 여행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빼면 남는 것이 얼마나 될까를 물을 만큼 여행은 중요하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택하신 구별된 곳으로의 여행을 요구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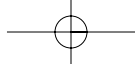


았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장소나 물건들을 존중하는 것을 경고하는 듯이 보이는 말씀도 있다(마 23:27; 요 4:20-24). 예루살렘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요구한 실천사항에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행 15:20)는 것이었다. 율법에서 요구한 삼대 절기를 지키라는 여행 명령은 이방 신자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 혹은 괴롭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였다. 이제 여행은 순회 사도들, 전도자들, 교사들, 은사자들의 전유물이었다.

2. 성지순례의 기원과 발전

순례(pilgrimage)라는 말은 라틴어 peregrinus(땅을 지나서)에서 온 말로 예정한 장소로 여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지순례는 언제, 누가 시작한 것일까? 2세기 중반에 사르디스의 감독 멜리토가, 3세기 중반에는 오리겐이 유대를 방문했다는 기록들이 있지만 이는 성경의 정보들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역사상 최초의 성지 순례자는 326년 콘스탄틴 황제의 모친 헬레나 황후였다. 콘스탄틴 황제가 주님이 묻힌 동굴 위에 성묘교회를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헬레나는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 교회는 황실의 미래가 달린 문제였다. 콘스탄틴이 정확한 증거도 없이 29세의 장남 크리스푸스와 둘째 아내 파우스타가 간통을 했다고 살해하고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성묘교회는 죄 사함을 받기를 위해 건축한 교회였다. 성지에 도착한 헬라나는 꿈속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지시받고 그곳에 묻힌 세 개의 십자가를 발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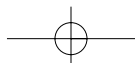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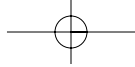


예루살렘에서 그 누구도 정확히 어디가 주님이 못 박히신 곳인지를 알지 못했다. AD 70년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파괴되면서 도시 전체는 폐허가 되었고, 그 2년 전에 교회는 요단 강 근처 펠라라는 곳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또 AD 135년 바-코흐바 반란으로 하드리아안 황제가 예루살렘을 아일리아 카피 톨리나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모든 유대인을 추방하여 출입을 금지시켰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아라비아로 이주하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헬레나가 발굴한 십자가들 중에 아무도 어느 것이 주님이 달리신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병든 여인의 몸 위에 세 개를 차례로 놓았다. 그 중 한 십자가가 여인의 몸이 치료했다. 드디어 300여년 만에 주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가 발견되었다. 그때부터 성유물이 가톨릭 예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중세 말기 유럽에는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왔다는 나무 조각들과 못들이 너무 많아 배 한 척을 만들고도 남을 만큼 많다고 에라스무스는 비아냥거린다.

이 때부터 성지순례에 대한 동경이 로마제국 전역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4세기 말 제롬이 예루살렘 수도원에서 살았을 때 부활절이 되면 순례자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제롬은 “우리의 하나님은 머물러 있던 무덤을 누가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고 말하며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신앙의 일부”라고 말했다. 반면에 히포의 감독 어거스틴을 비롯하여 여러 교부들은 성지순례가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지만 성지 순례를 신성한 의무처럼 여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본격적인 성지순례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전 세계로부터 사람들이 밀려들고 온갖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 찼다. 예루살렘은 혼잡하고 불편한 도시가 되었다. 제롬은 “당연히 거의 모든 것을 그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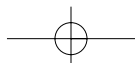


참고 견디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불평한다.

약삭빠른 유대인들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관광명소들의 숫자를 늘려갔다. 관광 안내원들은 주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과 찢리신 창뿐만 아니라 바위 위에 남아 있는 마른 피도 보여 주었다.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다닌 학교에서 벤치, 습자장까지 소개했다. 순례객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거룩한 땅을 기억케 하는 기념이 될 만한 물건들, 돌, 흙, 강물, 나무 조각, 나뭇잎과 열매 등을 취하고 기름병을 포함한 다양한 기념품들을 구매했다. 주님이 승천하신 올리브 산에는 방문자들이 흙을 가져가는 바람에 바깥에서 흙을 가져와 보충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야만 했다.

4세기에는 순례지들도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스라엘 성지는 이집트의 시내산을 비롯하여 사막 교부들이 사는 사막까지로 확대되었다. 333년경 한 보르도 출신의 순례자는 40개의 구약과 신약이 관련된 장소를 소개하였다. 381?384년경에 성지를 여행한 스페인의 한 수녀원 원장인 에게리아(Egeria, 혹은 Etheria)는 수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63개의 구약 관련 유적지, 33개의 신약관련 유적지를 자세히 소개했다. 그녀의 기록에 따르면 수도사들이 유적지를 보존, 관리, 안내하는 임무를 맡고 있고, 수도원은 숙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개한다(John Wilkinson, *Egeria's Travels: Newly Translated*, 1999).

그 후 순교자들이 묻힌 묘지들이 순례지로 첨가된다. 2세기 중반부터 순교자들의 묘지에 모여 그들의 영웅적인 최후에 경의를 표하며 자신들도 같은 길을 따라 나아가기로 헌신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제 묘지는 순례지로 거듭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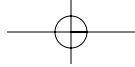


3. 성지순례의 동기들

중세 시대의 순례에는 단순히 거룩한 장소를 방문하는 것에 외에 더 큰 신앙적 의미와 가치들이 부여되었다.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성지 순례에 왜 그토록 큰 열광했던가?

첫째, 성지순례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기 위해서였다. 영국의 캔터베리로 순례를 간 중세 성도들은 죄가 용서되고, 친구들, 친지들을 위해 연옥에서 공로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보니파키우스 8세(1294-1303)는 로마 베드로 성당 방문자들에게 희년 면죄부를 발행하여 여행과 면죄부를 결합하였다. 그는 로마교회만이 100년에 한 번 발행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두었으나 이백 년 후 루터 시대에 이르면 면죄부는 어디서나 발행되었다.

둘째,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 혹은 질병을 치유를 받기 위해 성지 순례를 행했다. 425년 히포에서 어거스틴은 순교자 스테반의 유골을 모신 사당 건립했다. 그 후 2년 동안 70건의 치유 기적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한다. 한 번은 심히 병든 여인의 속옷을 그 사당에 가지고 갔는데 도중에 병자가 사망하였다. 그러나 그 속옷으로 시체를 씻더니 살아났다고 한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네 명이라고 말한다(『하나님의 도성』, 22.8).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사도행전적인 기적은 없다고 믿어왔던 어거스틴의 기적관이 바뀌었다. 기적을 발하는 성유골을 모신 곳에 병자들과 순례자들이 몰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 지금도 프랑스의 Lourdes에는 매년 2백만의 순례객들이 모여든다. 물이 특별한 치료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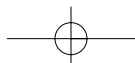
셋째, 자신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장소를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성지들, 특히 성탄절, 부활절을 맞아 베들레헴, 예루살렘, 가톨릭 교인들은 성모 마리아의 환상과 관련된 장소 영국의 Walsingham, 토마스 버킷의 순교지인 영국 캔터베리 성당, 프랑스의 Lourdes, 아일랜드의 Knock, 포르투갈의 Fatima를 순례한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드 콤포스텔라는 9세기부터 인기 있는 순례지로 야고보의 유골이 묻힌 곳으로 믿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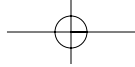
넷째,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중세 초기의 아일랜드 순례자들이 시작한 것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무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출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행하였다.

중세 말기에 이르면 순례는 토마스 아 캠퍼스, 에라스무스 등 강력한 비판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에라스무스는 “당신들은 유리관으로 바울의 몸의 일부분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서신을 통해 빛나는 바울의 온전한 마음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습니다”고 비난했다. 중세 후에 순례는 이슬람, 종교개혁, 이성의 시대, 회의주의의 증가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위기를 맞으면서도 현재까지 살아남았고, 현재 어느 지역에서는 중세 시대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 어떻게 여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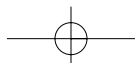
루터와 칼빈 등의 종교개혁가들은 중세 시대에 유행했던 순례여행이 가진 탈선을 보며 극도의 반감을 품었기에 여행 상품은 교회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종교개혁가들의 후손들 또한 여행이 가진 기능과 역할에 관심을 두지 않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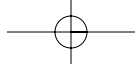




다. 오늘 교회에는 여행하지 않는 신자들, '성수주일' 한다고 일 년 52주를 한 울타리에서 맴도는 충성스런 백성들로 충만하다. 여행, 그것은 교회가 포기한 카드였다. 수백 년 동안 평민들은 여행을 포기해도 아쉽지 않을 만큼 먹고 살기에 다들 정신없이 바빴고 여행은 사치였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기술문명과 교역이 확대되며 교통수단, 교통량, 여행객의 규모, 여행범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고대 로마시대 사람들은 일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신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스포츠가 벌어지는 유명한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관광을 위해, 휴가를 즐기려는 목적으로 여행을 했다. 지금 우리도 비슷한 동기들로 여행을 한다. 여행이 삶의 일부처럼 격상된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또 여행을 경홀히 여길 수 없을 만큼 성경의 많은 대목에서 언급하기에 다시 심각하게 여행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하나님은 일 년에 세 번 그것도 안식일을 낀 장기간에 걸친 여행을 명령하셨을까? 그 명령을 따라 그렇게 여행하고 산다면 무슨 일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질까? 여행에서 그분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나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해답을 가진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 인간을 속속들이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명령을 하실 리는 없다. 인간다운 삶, 신앙인다운 삶에는 최소한의 이런 여행들이 요구된다고 보신 것이다. 성경의 많은 여행자들은 여정 중에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를 가졌다. 여행이란 죄지는 인간이 자아를 발견하고 죄의 올라미에서 풀려나는 기회로 제공하신 선물과도 같다. 자신이 가진 것들 중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진정으로 필요한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여행이었다.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의미 있는 여행이 없을 때 영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서적으로는 고갈된 채로 지내게 된다. 내 안에 여백이 없기에 가정이나 조직내





부에서 일어나는 갈등들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다. 좁아터진 기독교인들의 마음과 삶의 방식을 본 비판가들이 예배당을 떠나 차라리 높은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보라고 빈정되는데 그 속에는 답의 일부가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우리는 여행을 명령하신 분의 의도를 따라 남다른 여행 코스와 일정을 개발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굳이 해외로 멀리가지 않아도 근사한 곳들이 주변에 많다. 소플리니우스가 AD 2세기에 그리스, 이집트, 아시아에 있는 관광 명소에만 흥미를 보이는 자국 이탈리아인들에 남긴 다음 말을 들어보자. “우리는 지척에 있는 것은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는 무관심하고 멀리 있는 것을 찾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가려고 생각하면 언제든 보러 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뒤로 미루기 때문에,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의 도시나 그 주변에는 보기는커녕 들은 적조차 없는 명소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지역에 있는 기독교박물관들, 전국에 산재한 기도원들, 수도원들, 공동체들, 기념비적인 교회들, 기독교 위인들과 관련된 유적지들이 있다. 그곳에서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난다면 거기가 바로 명소이다.

좋은 여행은 충분한 준비로부터 시작된다. 전인적인 여행, 영혼을 추스르고 새롭게 하며 정서적인 쉽도 육신적인 스트레스도 풀어버리는 근사한 여행을 위해 꼼꼼히 계획하고 붓짐을 싸야 한다. 성경에서 가장 스틸 넘치는 여행자들은 동방박사들인데 그들의 성공적인 여행은 마음의 열망이 빛은 결과였다. 그들이 찾은 것은 어떤 장소나 죽은 자의 유골이 아니라 경배 받으실 살아계신 왕을 만나고자 했다. 그 왕을 알현하기 위해 합당한 준비를 했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같은 왕을 찾는 모든 순례객들에게 여행의 나침반을 제공한다.

